

제18회 세계 보건의 날 WHO 제안문

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

세계를 생각하고, 주변에서 실천하자

WHO는 제18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 - 세계를 생각하고 주변에서 실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상의 문제들 - 환경오염, 인구, 빈부의 격차 등 - 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인가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본 글은 WHO가 몇가지 지구상의 문제들을 제시한 논단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오늘날 인류에 있어 공통된 것 중의 하나는 사회·정치적 제도, 종교, 대륙, 국가 등에 관한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보건과 지구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을 이용한 문명의 발전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국가나 개인은 풍요로워질 수 있지만, 반면에 공장이나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간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20C 후반에 들어서이다. 세계적 추세인 녹색운동(Green Movement)은 변두리 소수 그룹에서 시작되었지만 국제적 무대의 중요한 세력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 생활의 질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생존은 이 별(지구)의 보호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19C 초반에 10억을 넘어선 인구는 이제 50억으로 증가했고, 2천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냉정한 통계의 바탕에는 인간 개개인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의 도처에서 8억의 인구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식수문제, 질병문제, 주거문제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가정에서 연료를 사용한 결과로 4~5억 이상의 사람이 실내공기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식량

부족, 초만원(인구과밀)사태, 계속되는 스트레스, 정신착란 등등이 무척이나 많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빈민들은 공업화와 낙후성 사이에서 해매고 있다. 즉 전염성질병, 영양실조가 주는 고통에다가 급속한 산업화, 화학물질의 과용과 관련되는 새로운 비전염성질병에 의한 고통까지 받고 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 건강관리와 교육의 제공, 적절한 주거시설, 편의시설, 위생·하수·교통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빈곤의 대표적인 표상인 영양실조는 도시빈민의 건강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5세미만의 14억5천만 어린이가 음식물 부족(WHO자료)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외에도 식품저장의 부적합, 영양의 불균형, 전염성질병의 문제가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안 지역에서는 사천만의 아이들이 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U.N.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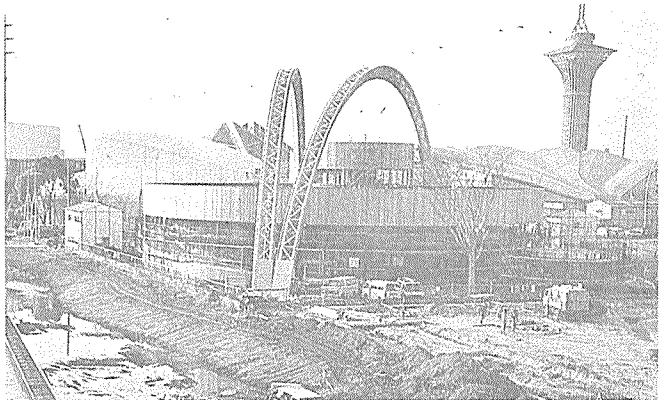
물은 생명의 필수원이다. 그런데 이 물이 각종 질병의 전염원이 되고 있다. 매년 5백만 제3세계의 어린이들이 설사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지구상의 비극의 주된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식수인 것이다.

척추성 소아마비, 말라리아, 뎅기열, 주열, 흡충증 등 수인성질병은 대부분 널리 알려진 질병들인데, 문제는 그 질병의 만연이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촌지역에서만 발견되던 말라리아가 이제 도시지역으로 이주해 빈민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이 질병의 병원성 요인 뿐 아니라 “가난”의 질병이 개발도상국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농촌은 어떠한가. 농산물의 증산을 위해 비료나 살충제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토양내에 남아있던 화학물질이나 질산비료가 물로 침투되어 잠정적 위험수위로 쌓여가고 있다.

최근 WHO는 이런 발표를 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

자원을 이용한 문명의 발전은 국가나 개인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이나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도 야기시켰다.





화학물질의 연소를 통해서건 농약물질의 조심스런 방류를 통해서건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온다.

지 못한 채 농약류를 사용함으로써 지역특유의 심각한 독성오염이 발발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공업선진국 역시 위험한 잔유물이 정기적으로 식품이나 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화학물질의 연소를 통해서건 농약물질의 조심스런 방류건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온다. 몇몇 개발도상국가들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다른나라의 독성 쓰레기를 묻기 위해 그들의 영토를 팔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업화된 북반구의 도시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과학자들과 일반대중들은 자동차를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제, 환경의 쾌적과 공중보건의 질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최근의 대기오염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무연휘발유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EEC)에서조차도 반공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만장일치되기 힘든 실정이다.

생활수준이 낮은 나라는 어떠한가?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공업지역은 농촌지역보다 더 많은 해로운 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된다.

지형, 기상상태, 햇빛 까지도 도시의 “광화학 스모그”를 야기시키는 대기오염의 복잡한 상호작용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대기오염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비난의 대상이다. 요망사항에 불과하겠지만 화석연료의 연소를 지양하고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면 환경은 깨끗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WHO의 자료에 따르면 6억2천5

백만의 사람이 대기중의 이산화황 평균수치가 허용기준치를 웃도는 도시에 살고 있다. 이것은 도시인의 호흡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높은 농도는 치사량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산성비는 낙엽현상과 나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질오염은 그곳에 사는 생명체를 죽이고 있고 화학물질은 여과되지 않은 채 토양과 지하수 속으로 유입되고 있다. 산성비는 발생지점에서 수백마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WHO에 따르면 12억5천만의 지구인이 화석연료의 연소와 공업화의 부산물에 의한 오염물질로 인해 무의식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공업화”의 친절한 지킬박사 뒤에는 “오염”의 사악한 하이드가 숨어있는 것이다.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역시 문제이다. 가정·공장·농촌 등에서 에너지 과소비와 인구증가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가진 숲과 바다를 파괴해 버렸다.

또한 지구 온실효과가 나타내기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에 의해 제공된 온실효과는 가속화되고 있다. 냉장과 냉매제나 에어로졸 통의 추진 Gas로써 다목적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O₂)는 앞으로 70~100년동안 환경에 있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온실효과 뿐 아니라 지구상 서식 동물을 적외선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많은 문명들이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쯤 생각해 보자!

지구의 온도상승과 오존층의 파괴는 선 사이래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즉 온도가 상승하면 극비장의 빙산이 녹기 시작하고 바다의 수면이 높아져 버릴 것이다.

지구상의 이러한 변화들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소한 노력도 도움이 된다!

WHO가 내건 90년 세계 보건 의 날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

세계를 생각하고 주변에서 실천하자!

최근 10년간 활동해 온 그대로 환경문제는 세계의 새로운 과제로 채택되었다. 17C 영국 시인 John Donne은 “그 자체로 완전히 홀로 있는 사람은 없다”고 썼다. 이것은 달리 표현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안전지대인 나라는 없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많은 문명들이,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계속)

(역자: 김명종)